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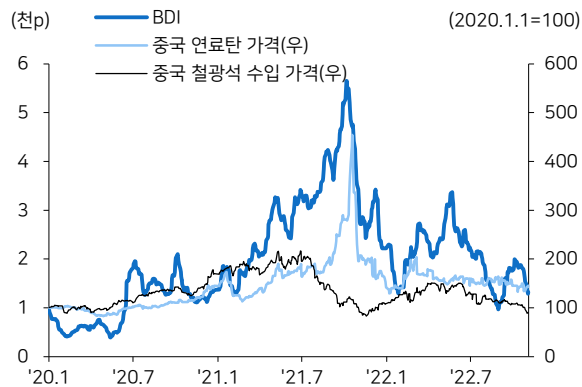
2022. 11. 7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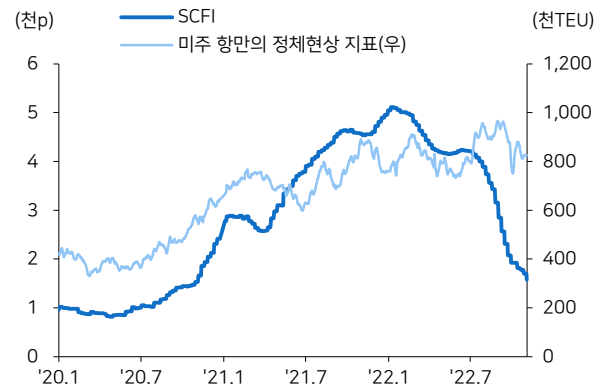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23.0p(+3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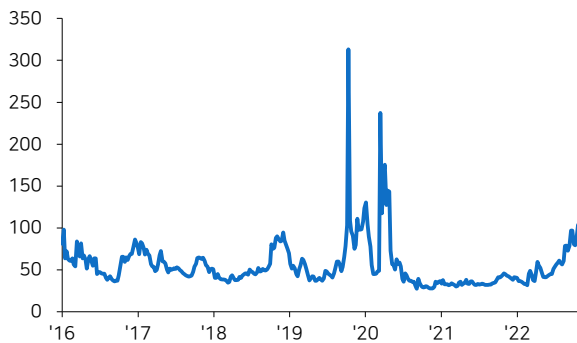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579.2p(-118.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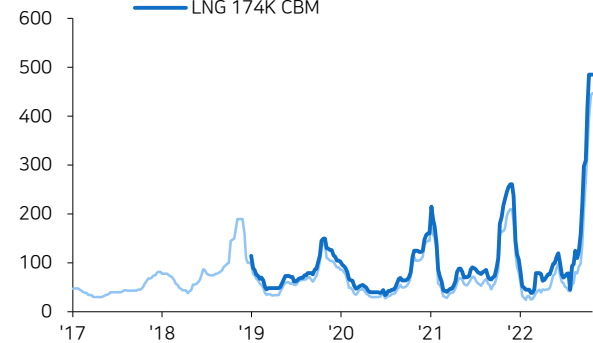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WS) VLCC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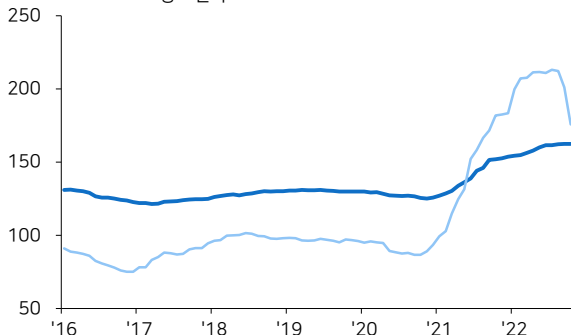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천달러/일) LNG 160K CBM, LNG 174K CBM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p) 신조선가, 중고선가



항공시장 지표

227.2p(+3.2p DoD), 91.1p(+1.9p DoD)

(p) MSCI 항공화물 index, MSCI 여객 Index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중국 또 "제로 코로나 고수"...코로나19 감염자는 반년 만 최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보도됨. 최근 당국이 국내 거주구 봉쇄 대폭 축소,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당국의 공식 부인으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됨. 한편, 중국 내 COVID-19 감염자는 6개월래 최대 수준이라고 알려짐. (한국경제)

Guyana to auction 14 offshore blocks using revamped royalty scheme

가이아나 정부가 2023년 14개 해상유전부지를 입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기존 계획은 2022년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에 따라 2023년으로 미뤄진 바 있음. 11개 부지는 천해(shallow water) Suriname, 나머지 3개 부지는 심해(ultra-deep water) C 구역이라고 알려짐. 정부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3개 유전만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함. 천해유전은 5년, 심해유전은 10년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임. 로열티 비율은 현재 2%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임. (Upstream)

Christmas clash: Frontline and Euronav did not want merger tender to run over festive period

Euronav와 Frontline의 합병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피해 2023년으로 미뤄졌다고 보도됨. 기존 계획은 이번 4분기에 마치는 것이었음. Frontline이 법인을 Bermuda에서 Cyprus로 이전시키는 절차도 필요해 복잡한 딜이라고 설명함. (Tradewinds)

G7 and Australia settle on fixed price but exempt shipping costs from Russia oil cap

G7과 호주가 러시아산 해상 운송 석유의 가격 상한을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됨. 지수를 할인한 고정가로 정하고, 러시아산 원유의 리세일은 해당되지 않고, 해상운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됨. 12월 5일부터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상은 해상으로 옮기는 원유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는 2023년 2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러시아산 원유가 정제되어 휘발유가 되면 정제 후의 교역은 제재대상이 아님. 한편, 미국 재무장관은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제시한 바 있음. (Tradewinds)

Premiums pay as eco VLCCs with scrubbers see spot earnings burst past \$100,000 per day

발틱거래소의 Spot VLCC 운임은 3개월래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보도됨. 높은 연료 가격으로 스크러버가 장착된 eco 유조선의 spot 운임은 100,000달러/일을 초과했다고 보도됨. 활발한 Spot 용선 성약 체결로 VLCC의 용선료는 일주일 사이 25% 상승함. 브로커 Howe Robinson은 eco VLCC 단기 운임 프리미엄을 약 9,100달러/일로 추정, 스크러버가 장착된 non-eco 선박의 프리미엄은 15,800달러/일로 추정된다고 언급함. (Tradewinds)

케미컬 탱커 시장 향후 3년간 강세

Odfjell CEO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케미컬 탱커 시장 강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도됨. 계절적으로 시황이 저조한 3분기에도 시황이 계속 개선되었으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짐. 높은 신조선가, 연료 불확실성으로 오더북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현재 원유운반선 및 PC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 지금까지 케미컬 탱커 시장을 오가던 swing tonnage는 앞으로 케미컬 제품 수송시장에 참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언급함. 이에 톤마일 수요가 선대증가율을 앞지르며 3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알려짐. (선박뉴스)